

학생회 법제화, 학생자치 실현의 첫 걸음입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자치활동의 일환이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인 학생회. 학생회는 그만큼 교육적으로나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회가 학교 안에서 맡은바 본분을 다하며 참다운 학생 자치활동을 이루어 내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많은 학교 학생회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활동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기구', '대표기구'라고 불려야 할 학생회가 어느새 학우들에게 '노동조직', '노동청년회'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것은 학생회가 학교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은 하지 못한 채, 그저 선생님들이 시키는 행사 준비에 전념하고 수능기원 떡값 걷기, 지각생 지도 등 온갖 잡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칭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교에 의해 마치 학생회의 의무인 듯이 규정되어 왔습니다. 학생 자치의 권한은 그 자체로서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다가 더욱이 '의무' 또한 완수해낸 학생회라면 의무에 대한 권리 즉, 권한을 보장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회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권한은 절망적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의 권한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회칙에서는 학생회의 목적을 자율적 자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학생회 지도위원회 선생님들의 지도뿐만 아니라 승인 또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치 활동에 대한 학생회의 권한이 제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예산의 예·결산권, 대의원회의의 개표권 및 안전설정에 대한 권한, 학생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 그리고 학생회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 자치활동의 중요한 권한들 모두가 학생회가 아닌 학생회 지도위원회 즉, 학교 당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칙에는 학교 행정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어,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칙의 재·개정권 또한 지도위원회에게 있어 학생의 뜻에 따른 회칙개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학생회 지도교사의 지도라는 명분 아래 학생회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많은

학교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참다운 학생 자치활동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낼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생회 법제화입니다.

학생회 법제화, 학생회와 그에 따른 권한을 나라의 법으로 규정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자치활동을 제도를 통해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현행 규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 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쓰여 있어, 자치활동을 단지 권장해야 한다는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학생회를 법적 공식기구로 규정하여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설치 되도록 하고 중요한 권한 - 학생회칙 재·개정권, 예산의 예·결산권, 사업권, 임원 임명권, 학생대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가권 등 - 들 역시 법으로 규정하여 학생회의 권한을 법으로서 보호하여 학생 자치라는 목표를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 학생 자치는 '민주적, 적극적 시민 양성'에 필수불가결합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단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사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마음가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학생회 법제화는 열악한 학생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학생에게 삶의 주체로서 권한이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전화 몇 통은 교사의 권위마저 뒤흔들지만 학생의 건의사항은 무시되고, 재정에 대한 관심은 어린 학생의 치기일 뿐이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로 울립니다. 잃어버린 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학생회 법제화입니다. 학생회는 학생의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당한 자격으로서 학생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곧 학생 전체의 권리 또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회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생회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자치의식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회 법제화는 학생 자치를 위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을 제도로서 보장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회 임원들이 처음에는 많은 공약 혹은 학교 변화라는 목표를 품고 학생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참담한 현실에 부딪히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치활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 첫 발판인 학생회 법제화를 대한민국 사회에 촉구합니다. **강민**



전 누리
·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 구로고등학교 2년

학생회는 우리가 지킨다



- ▶ 전누리 (19, 구로고 3학년)
- 구로고 학생회 부회장
-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소속

▶ 청소년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선배를 통해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기획팀이 주관한 '2004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에 희망 청소년대표로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이 모두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인권침해를 크

게 느끼지 못하였으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생회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부설 학생회센터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는 각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학생회의 참된 발전과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60~70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지 축제를 위한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학생회법제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를 포함하여 몇몇 청소년 모임들이 모여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를 만들어 학생회법제화 간담회를 주최하였습니다.

▶ 학교 내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학생회는 축제만을 위한 학생회, 학교의 행사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홍보실의 역할

등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회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천하려 하면 그것을 왜 하느냐는 일부 선생님들의 시각과 입시문화에 길들여져 입시 외에는 다른 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학우들로 인해 학생회가 제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학교에 참여하는 자치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모두 학생회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회가 법제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책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민주화가 아니라 학생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교육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학생들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여 학생회 법제화 실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폭력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진회 문제가 커지면서 마치 모든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진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는 친구들을 모두 일진회라는 조직으로 묶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는 일진회가 농담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스쿨폴리스제도,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CCTV, 병영체험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학생들이 교육에 흥미를 갖지 못해 생긴 것인데,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감시하겠다' 식의 정부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보다 전문상담교사를 늘려 모든 학교에 상주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 등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있었으며 그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은 이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입시구조에 묶여 참여보다는 순응이 강요되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전의 순수한 열정과 참여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것이라 생각하길 바랍니다.

▶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모습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했으면 합니다. 할 말은 하고 그 말에 대해 실천하는 모습이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

정리 : 이유미 교육운동본부 간사